

When is The “Big Idea” Too Big?

By Calvin Pearson
(Preaching, Fall 2024)

때때로 우리는 설교자로서 정말 좋은 중심 사상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설교학적 흥분을 친 것처럼 느껴지죠. 그것을 설교할 때 기쁨이 넘칩니다. 통일성, 진행, 긴장감 등 효과적인 중심 사상을 가질 때의 모든 장점을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종종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나는 이 본문에 더 감동받았는가, 아니면 내가 본문을 다른 방식에 더 감동받았는가?* 정교하게 구성된 설교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선포하는 데서 오는 만족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무오한 말씀보다 내 창의적인 표현에 더 감명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려움이 듭니다.

소통의 이 원칙은 "큰 생각"(big idea), "주된 사상"(main idea), "중심 사상"(central idea), "주제"(thrust), "주된 명제"(main proposition), 또는 "목적"(purpose)이라고 불립니다. 저는 세 개의 서로 다른 신학교에서 이러한 중심 사상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배웠고, 40년 이상 동안 학생들에게 본문에서 나오는 명확하고, 정확하며, 흥미롭고, 적용 가능한 중심 사상을 만들어내기 위해 씨름하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저는 하나의 중심 사상을 목표로 삼지만, 혹시 내 시야 조정이 필요한 것은 아닐까요?

아베 쿠루빌라(Abe Kuruvilla)는 그의 글 “Time to Kill the Big Idea? A Fresh Look at Preaching”에서 중심 사상의 중요성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중심 사상을 설정하는 것이 본문에 해를 끼친다고까지 말했습니다¹. 이에 대해 러셀 세인트 존(Russell St. John)²과 스티브 매튜슨(Steve Mathewson)³은 그의 이의 제기에 응답하며 중심 사상을 “폐지”하려는 시도를 설득력 있게 저지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화는 제가 이 소통 원칙을 어떻게 생각하고 사용하는지 재평가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중심 사상에 너무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한 설교학 교수가 “주된 사상이 너무나도 명확하고 중심적이어야 해서 그것이 마치 성찬상 위에서 떨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야 한다”고 말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쿠루빌라가 반대한 것은 바로 이런 점이었을 것입니다.⁴ 그는 중심 사상을 “모든 것이

¹ Abraham Kuruvilla, “Time to Kill the Big Idea? A Fresh Look at Preaching,” *Journal of the Evangelical Theological Society* 61, no. 4 (December 2018), 825-46.

² Russell St. John, “*Big Ideas, Bad Idea*,” *Journal of the Evangelical Homiletics* (March 2020), 26-50.

³ Steven D. Mathewson, “Let the Big Idea Live! A Response to Abraham Kuruvilla,” *Evangelical Homiletics Society* 19, no. 1 (March 2019), 33-41.

⁴ Kuruvilla, 835

복종해야 하는 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저는 중심 사상을 가지는 것에 찬성하지만, 그것이 올바르게 사용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중심 사상을 사용해 본문을 설교해야 하지만, 지나치게 강조하면 본문을 사용해 우리의 사상을 설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중심 사상과 본문이 동일해야 하며, 중심 사상은 본문을 다시 표현한 것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본문은 중심 사상의 기초입니다. 그러나 둘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서로 다릅니다. 누구도 중심 사상에 대해 무오성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중심 사상이 성경 본문을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하나의 수사적 도구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명령은 “말씀을 전파하라”(딤후 4:2)이지, “사상을 전파하라”가 아닙니다.

중심 사상(Big Idea)이 오늘날처럼 항상 강조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리스토텔레스, 키케로, 퀸틸리안과 같은 고대 수사학자들은 연설에 중심 사상이 있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⁵ 하지만 그들의 글에서 중심 사상에 대한 특별한 강조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초기 소통에 대한 글에서도, 하나님께서 인간의 뇌를 중심 주제를 갈망하도록 만드셨음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하지만 이들은 설교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중심 사상이 성경 본문에서 나와야 한다는 문제를 다룰 필요는 없었습니다.

이에 반해, 아우구스티누스는 그의 저서 **기독교 교리서**(*De Doctrina Christiana*)에서 설교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뤘습니다. 그는 초기 수사학자들의 주장을 반영하며 해석학과 설교에 대한 유익한 지침을 많이 제공합니다. 그러나 중심 사상을 강조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는 고대 수사학자들이 이 주제를 충분히 다루었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부터 12 세기까지 중심 사상에 대한 구체적인 사상은 거의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설교에 대한 글이 많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몇몇 덜 알려진 설교 매뉴얼을 제외하고는 말입니다.⁶ 1322 년경 로버트 오브 바세보른(Robert of Basevorn)은 설교는 "하나의 진술"(one statement)⁷을 기반으로 세워져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언급한 최초의 인물일 수 있습니다. 그는 설교에 중심 사상이 있어야 한다고

⁵ Kuruvilla, 826

⁶ James J. Murphy, *Three Medieval Rhetorical Art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1, xvii.

⁷ Murphy, 140-141.

주장했습니다. 중심 사상은 수 세기 동안 수사학적 도구로 사용되어 왔지만, 오늘날처럼 강조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대에 들어 중심 주제는 명확하고 보편적으로 강조되었습니다. 필립 브룩스(Philip Brooks)는 중심 사상을 최고로 여겼습니다.⁸ 앤드류 블랙우드(Andrew Blackwood)는 명사수가 목표물을 겨냥하듯 중심 목적을 가지라고 권고합니다.⁹ 그래디 데이비스(Grady Davis)는 설교자들에게 중심 사상을 가지도록 이끌었습니다.¹⁰ 하돈 로빈슨(Haddon Robinson)은 중심 사상을 강조하여 “The Big Idea”¹¹라는 책이 그의 가르침에 기반해 출판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중심 사상에 대한 격려는 J.H. 조웻(J.H. Jowett)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로빈슨의 명저에서 인용된 그의 말에 따르면, 중심 사상은 “구름 한 점 없는 달처럼 명확하고 투명해야 한다”고 합니다.¹² 효과적인 설교에는 중심 주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에 대한 통일된 동의가 있습니다. 저 역시 이 가르침으로 많은 유익을 받았고, 제 수업에서도 이를 가르칩니다. 설교에서 중심 사상이 강조된 것은 중세 후기 이후의 일이지만, 오늘날에는 분명히 받아들여지고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중심 사상은 수사학과 설교학의 구성 개념임을 유념해야 합니다. 이는 효과적인 소통 방식을 정확히 설명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의 직접적인 계시는 아닙니다. 성경이야말로 하나님의 직접 계시입니다. 중심 사상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된 신적 영감을 전달하기 위한 수사적 도구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큰 생각”(Big Idea)이 지나치게 강조되지 않게 하려면

중심 사상이 지나치게 강조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음을 명심하십시오:

1. 본문과 중심 사상의 연결을 명확히 하라.

중심 사상과 본문 사이의 연결이 명확히 보이도록 해야 합니다. 연역적 구조(deductive structure)에서는 설교 전반에 걸쳐 본문과의 연결이 명확하게

⁸ Books, Philip. *Lectures on Preaching*. Dutton, 1877, 143.

⁹ Blackwood, Andrew. *The Preparations of Sermons*, Abingdon, 1948,40.

¹⁰ Davis, Grady. *Design for Preaching*, Fortress, 1958,20.

¹¹ Whillhite, Keith, and Scott M. Gibson, Eds. *The Big Idea of Biblical Preaching*. Baker. 1998.

¹² Robinson, Haddon. *Biblical Preaching*. Baker. 1980,35.

드러납니다. 귀납적 구조(inductive structure)에서는 설교가 진행되면서 본문과의 연결이 점점 명확해질 수 있지만, 중심 사상은 여전히 본문에서 나와야 하며 본문을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2. 주해에서 설교학으로 발전하라.

주해적 사상을 먼저 형성하고, 이를 신학적 초점이나 신학적 사상으로 이끌어간 다음, 이를 설교 사상으로 구체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각각의 사상은 본문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3. 청중의 시선을 중심 사상이 아니라 본문으로 이끌라.

중심 사상을 형성하는 데 들이는 만큼 본문 읽기에도 동일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할 때, 중심 사상을 다시 언급하는 것은 유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다시 초점을 맞추는 것도 추가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본문을 다시 읽거나 최소한 핵심 구절을 다시 읽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설교에서 마지막으로 언급하는 내용이 우리의 사상이 아닌 성경 말씀 자체가 되게 해야 합니다.

4. 본문을 소개하라, 사상만 소개하지 말라.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회중이 성경 본문이 아니라 우리의 사상만 듣도록 준비시키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청중은 처음부터 우리가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성경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초청받아야 합니다.

효과적인 중심 사상을 추구하는 것은 강력한 소통 도구입니다. 우리는 이 도구를 계속해서 활용하되,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우리의 생각을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설교하라는 점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Calvin Pearson recently retired from Crossroads Baptist in The Woodlands, Texas, but still serves the Lord through writing, serving as adjunct professor and sermon-coach.